



이/달/의/스/승

3월

‘고뇌하라 그리고 헌신하라’는 평생의 가르침과 실천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같은 선생님

박종천



박종천 (朴鍾天)

1949.05.01

올해의 스승상(2004)

항조근정훈장(2011)

40년간 충남과 대전에서

중등교사로 근무

충남 부여고등학교, 예산덕산고등학교,

조치원여자고등학교, 조치원고등학교,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대전고등학교

문원고등학교, 충남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침. 2011년 8월

충남여자고등학교에서

수석 교사로 정년퇴임

(1972-2011)

'고뇌하라 그리고 헌신하라'는 평생의 가르침과 실천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같은 선생님

박종천

3월

이달의
스승

박종천 선생님 01

삶의 건넌목에서 징검다리가 되어주신 선생님

고스란히 마음을 담은 편지를 통해 학생들에게 한 발자국 먼저 다가서는 선생님은 30여 년간 제자들과 주고받은 사랑의 편지 3,000여 통을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습니다. '고뇌하라, 그리고 헌신하라'는 선생님의 산문집 제목이기 전에 제자들에게 새기고자 했던 평생의 가르침이며 실천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옛 제자들까지 챙겨 위로해 온 박종천선생님은 지금도 제자들과 행복한 노년을 **동행**하고 있습니다. 때론 친구처럼 아버지처럼 형처럼 항상 제자들 곁에서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주신 박종천선생님의 뜨락에는 제자들이 전하는 감사의 마음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하는 형편이었는데 선생님께서 부모님을 설득하셔서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선생님과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김연형, 1977년 예산덕산고 제자)

제 진로에 큰 영향을 주셨습니다. 선생님과 같은 전공인 지리교육과로 진학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자 제 손을 꼭 잡으며 '고맙네' 라고 하신 선생님이 잊혀 지지 않습니다.
(최규학, 1972년 부여고 제자)

제가 파산하여 어렵고 힘들던 때였습니다. 우연히 선생님을 찾아뵈었더니 서둘러 은행에 가서 100만원을 찾아 생활비에 보태라고 주셨어요. 선생님의 도움과 격려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옆에 계시는 것만으로 제겐 큰 힘이 됩니다.
(김동은, 1983년 조치원여고 제자)

가난으로 몇 번이나 학업을 포기하려고 했던 제게 교육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주셨던 선생님. 늘 믿고 지켜봐주셔서 시련 속에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강순애, 1982년 조치원여고 제자)



박종천 선생님과 제자들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까이 있는 다정한 친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마음과 귀를 기울여** 들어주는 **친구** 같은 선생님.
스스럼없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터놓으며 평생 동행하는 **아름다운 친구인** 박종천선생님.

저는 입대 전 날 선생님 댁을 찾아가 하룻밤을 잤습니다. 얘기하느라 밤을 꼬박 새고 날이 밝자 선생님 전송을 받고 입영열차를 탔지요. (신명섭, 1972 부여고고 제자)

별명이 '박 군'이었는데, 모든 것을 들어주고 수용해주는 친구 같아서지요. 3학년 방학 때 친구들 셋이서 여행하며 우여곡절 끝에 통행금지 시간이 넘어 선생님 댁을 찾아가는데 1시가 넘는 시간에 차려주시는 밥을 먹고 잤습니다. 이후에도 학생 몇 명이 가는 여행에 기꺼이 동참하시고 3박 4일의 여행경비를 모두 부담하셨습니다. (강태형, 1977년 예산덕산고 제자)



먼저 다가와 보듬어주는 따뜻한 동지이며 비밀 언덕



박종찬 선생님 02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추운 날씨에도 장지까지 와서 위로해주셨어요. 이후로도 아버지의 부자를 염려하시면서 자주 격려해 주셨지요. 교사로 첫 발령을 받아 부임했을 때는 선생님의 축하전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사는 모습을 늘 알고자 하시며 먼저 안부를 물으시지요. (이옥희, 1984년 조치원여고 제자)

6.25때 부친과 동생을 잃고 홀어머니 밑에서 크던 정진수 학생을 선생님은 각별하게 생각하셨어요. 불의의 사고로 그 제자가 유명을 달리했을 때 선생님은 자식을 보낸 것과 같은 슬픔을 느끼고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전순배, 1977년 예산덕산고 제자)

제 아이가 입원했을 때 신문사에서 받은 원고료를 치료비에 보태라고 도와주시고 퇴원할 때는 옷도 사주셨지요. 새 집을 사서 이사하던 때는 축하 편지와 함께 생활용품도 보내주셨습니다. (이명순, 1977년 예산덕산고 제자)

실천을 통한 가르침의 철학으로 밝히신 삶의 등대

넓고 깊은 선생님의 제자 사랑과 말씀으로 가르치시기보다는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하신 선생님의 철학은 제자들의 **정신적 지주**이며 삶의 **따뜻한 의지처**가 되었습니다.

현직 장학사이신 이정수씨는 “살 자체가 순수하고 정직하며 올곧은 분으로 제자들이 신뢰하고 따르는 참 스승”이라며 선생님을 “대한민국의 제일가는 선생님”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선생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열심히 따라가려 했으니 교육자로서 거울이 되고 롤 모델이 되는 분. 제게 **교직의 사표**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현직 교교장인 최규하씨는 “선생님의 자극한 제자 사람이 저절로 스승 **존경**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고, 저도 선생님을 본받아 제자를 더 사랑하는 교육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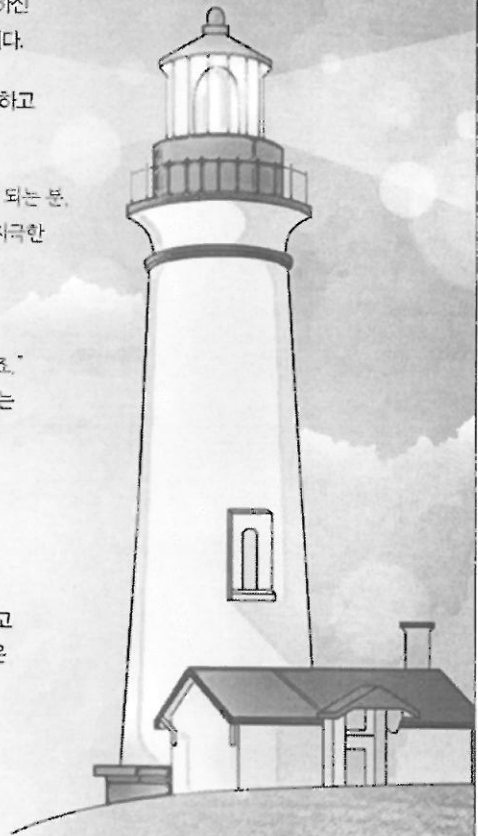
“**실천으로 정직**을 가르쳐주셨고 다른 사람들이 저절로 따라오게 하는 힘이 있으시죠.”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신명섭씨에게 선생님은 “어떻게 살아야한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인생의 사표**가 되는 분”입니다.

평생의 아름다운 동행

오랜 세월 은은한 향기로 마음의 고향이 되신 선생님을 제자들은 ‘**심향(心鄕)**’이라고 합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은은하게 풍기는 ‘**목향**’ 같고, 그윽한 향기를 오래 품은 ‘**고전**’ 같은 선생님이야말로 참 사람의 향기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분 아닐까요?

“힘들 때마다 선생님께 상의 드리면 제 사정에 진심으로 귀기울여 주셨지요. 방향을 제시하고 마음을 다독여주셔서 언제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학교수인 강태형씨에게 선생님은 **삶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만남을 44년째 계속하는 신명섭씨는 “돌이켜보면 제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셨어요. 언제나 기억하고 **동행**하는 분. 어디건 함께 할 수 있는 분이지요. 심지어 저의 회갑여행까지 동행하셨습니다. 평생을 동행하고 존재만으로 좋은 분이지요.”



같은 지리교사인 이정수씨에게 지속적으로 학습 자료를 보내주시고, 제자들 애경사를 빠짐없이 챙기고 석사학위를 받는 제자에게 꽃다발을 들고 가서 축하해주는 선생님에 대해, 유아교육사업을 하는 김동은씨는 "선생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고 감동합니다.

"선생님으로 인해 평생의 배움을 만났습니다. 선생님의 제자라는 점에 쉽게 호감을 갖고 반려자로 결정했지요." 대학강사인 박용희씨의 말에는 선생님에 대한 무한신뢰가 담겨있습니다.



박종천 선생님 03

선생님의 사랑은 현재 진행형

졸업하는 제자들에게 편지로 전한 마지막 당부 '고뇌하라, 그리고 헌신하라'는 말씀에 선생님의 **삶과 철학**이 응축되어있습니다. '고뇌하라, 그리고 헌신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생활하려 했다는 박용희씨는 '훌륭한 스승이 삶의 길을 제시하고 이끌어오셨다.'며 선생님처럼 **'항그러운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윤봉길 의사 사적지에 학생들과 함께 탐방하고 연구하며 윤봉길의사의 정기를 본받아 큰 사람이 되고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고, 학생들에게 꿈을 갖고 정진하며 늘 **고뇌**하고 깨어있으라고 한 선생님의 말씀을 새기며 살고 있는 제자들

"선생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실천하고자 은혜로 받은 것을 제가 많은 아이들에게 나눠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초등 교사 강순애씨처럼 오늘날 제자들은 선생님을 따라 고뇌하고 헌신하며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박종천 선생님 인터뷰

어떤 선생님을 참 스승이라고 생각하세요?

참스승이란 올바른 가치와 덕목을 심어주는 멘토로서의 선생님, 미래의 꿈과 희망을 촉동워주는 리더로서의 선생님, 학생의 발전과 성취를 돕는 촉진자로서의 선생님, 올바른 가치를 실천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제시하는 안내자로서의 선생님 등 그 역할을 열심히 하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제자가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1977년 덕산고에서 만난 제자 정진수가 생각납니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늘 성실하고 신중하며 성적이 우수한 모범생이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신망을 받았고 학생회장으로서도 책임감이 남달랐지요. 그 친구가 27살 때 사고로 생을 마감한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애통한지 제게도 깊은 상처로 남아서 잊을 수가 없고 그립니다.

현직에 있는 후배교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려운 교육환경이지만 학생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갖고 공지와 자부심으로 많은 보람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아름답고 인생은 가치 있다는 긍정의 자세로 학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모든 성공은 긍정적인 관점의 산물이기 때문이지요. 확고한 교육관, 건전한 가치관, 엄격한 도덕성을 갖추고 학생지도에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드립니다.

